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로선을 토의결정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領導밑에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장구하고 준엄한 투쟁 속에서 최악의 역경과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세찬 기세에 질겁한 적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날로 가중되는 적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영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맞받아나가는 반미전면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적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선불질을 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령도는 위대한 군주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작적인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난해 12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날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The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체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차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또다시 보다 강도높은 The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암 합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희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핵보복을 더욱 억제해 틀어쥐고 강성부총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있는 선군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군의 위력을 배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체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선군의 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시험에 성공한 그 기백으로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가 인민의 행복과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절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릅니다.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통성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입니다.

입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됩니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 규모의 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핵무기로 정밀타격 할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 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강위력한 핵무력 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입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어떻게 하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둘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타월한 령도, 강철의 담력으로 마련하여 주신 든든한 원자력공업이 있으며 무진장한 우리나라 원자원도 있습니다.

당의 병진로선은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로선이며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도 인민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군주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병진로선을 천명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와 함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해주시였기에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대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습니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1 면 에 서 계 속)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치렬한 반미핵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면서 핵보유의 대업을 이루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에 도약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따라 일단 마음먹은것을 다할 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우뚝 내세워주신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핵무력을 종종으로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대 대한 당의 병진로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보검이며 우리 나라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대대손손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기치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주체혁명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여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사랑하는 조국땅에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우리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어떻게 추켜세우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인

민경제 전반이 일떠서고 활기있게 전진할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답게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자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당시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의 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고 있는 현시기에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연료, 자재들을 국산화하며 특히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개발력량을 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기술로 개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주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들에서는 경제발전전략과 부문별,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잘 활용하여 생산적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을 연구완성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원산지구와 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판광지구를 잘 꾸리고 판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의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입니다.

핵억제력만 든든하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마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습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조국을 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큰걸음을 내짚어야 합니다.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며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핵물질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원자력부문에서는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원자력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갑시다.

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역할을 높이고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인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하자고 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핵강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대외활동을 배심있게 벌려 우리 당의 국제적권위를 더욱 높이고 자주적 대를 철저히 세우면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대외적조선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로 떠밀고있는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반동성과 부당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선택과 로선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실현에 이바지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념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관철에 힘차게 벌쳐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위한 신심을 굳게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더욱 과감하게 싸워나가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키워주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며 투쟁전통입니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추진하여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나갑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있는 중대한 혁사적시기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회의에 참가한 전체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갈대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일부 소환, 보선할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핵강국건설업적을 응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혁사적리정표로 됩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들에 대한 토의가 원만히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찰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은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병진로선을 제시한 우리당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혁량을 총집중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심장속에서 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것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토력을 총집중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경제의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핵무력을 종종으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변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절대로 핵을 약화시킬수 없으며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핵위력이 강화될수록 자만도취하지 말고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만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펼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하자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병진로선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원회의 기본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천만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가며 대결전도, 경제강국건설도 우리의 힘으로 보란듯이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을 당정책의 견결한옹호자로, 당의 토선과 정책관철에 한몸을 내대는 열혈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절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만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펼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미제와 최후의 판
가리전대결전을 벌
리고있는 공화국 군
대와 인민이 심장으
로 터지는 웨침이 있다.

선군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출판물들에서도 울려나오
고 노래로도 울리는 선군조
선의 이 단호한 목소리.

우리 공화국은 지구에 몇
안되는 핵강국, 인공위성제
작 및 발사국의 위치에 올
려세우고 민족의 힘을 천
만배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정일 시대에 울려 퍼진
이 선언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시대에 더
욱 힘차게 울려펴져 행성을
들었다놓고있는것이다.

이 말은 한갓 공허한 웨침
이 아니다.

여기에는 숨길수 없는 진
리가 숨여여있다. 선군조선
이 없다면 지구가 존재할 의
미도, 가치도 없다는것이다.

조선은 자주와 정의에 사
는 나라이다. 세계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지만 조선
과 같이 자주를 생명처럼 여
기고 정의와 진리를 대변해
온 나라가 과연 또 있던가.
조선은 자기의 자주권을 귀
중히 여길뿐아니라 다른 나
라와 민족들의 자주권도 언
제나 귀중히 여기여왔다. 다른
나라에 돌멩이 하나 던진

선군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적이 없었다. 지배와 간섭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
주화된 세계, 평화로운 세계
를 위해 조선은 싸웠고 오늘
도 싸우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힘에 굴복
하여 할 소리도 못하고 유엔
조차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
한 오늘의 국제무대에서 자
주권과 존엄을 잃지 않고 시
종일관 횡포한 제국주의 미
국과 맞서 싸우는 나라가 조
선이다. 미국이 조선을 눈에
나타나면서 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적대시 압살의 죽례
를 풀지 않고 있는것은 바로
조선이 자주와 정의의 성새
이고 미국의 강권과 침략에
시종일관 맞서싸우는 나라이
기때문이다.

조선이 적대세력의 갖은
위협공갈속에서도 인공지구
위성을 우주에 쏘울리고 지
하락시험을 강행한것은 대국
위주의 불공평한 세계질서에
대한 단호한 부정이고 자주
권의 파시이며 『제재』와
압박을 받는다 해도 정의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굳센 의지의 표
출이다. 지구상에서 핵무기
를 제일 많이 만들고 인공위
성을 제일 많이 쏘울린 미국

이 하는것은 합법이고 조선
이 하는 일은 덮어놓고 나쁘
다고 하는것이야말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이중기준의
국치이고 현 세계의 비극이
며 참혹한 현실이 아닐수 없
다. 그에 조선은 머리를 수그
리고 무릎을 꿇은것이 아니
라 단호한 대응조치, 미국을
비롯한 포악무도한 적대세력
과의 전면대결전에 나섰다.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는 적
대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용
납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싸
우며 단호한 정벌을 안기려
는것이 선군조선의 드립없는
의지이고 무비의 담력과 배
짱이다.

선군의 나라 조선은 자기
를 지킬 강력한 힘도 있고
침략세력을 씨도 없이 소멸
할 만단의 준비와 힘을 갖추
고있다.

힘이 없는 정의가 불의로
매도되고 제재와 침략의 대
상이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슬픈 세계현실이다. 정의는
힘이 안받침되어야 빛을 발
휘하고 승리한다. 인류가 처
절하게 느끼고있는 행성의
이 진리를 남먼저 깨닫고 일
찌기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들
어 자위의 강국을 건설해온
것이 공화국이다.

선군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는 추상같은 선언에는
자주와 정의를 끝까지 지켜
싸우며 불의와 매국을 절대
로 용납하지 않고 호되게 정
벌하려는 선군조선의 단호한
의지와 결심, 멀적의 기상,
무적의 힘이 여기여있다.

조선은 단호한 의지와 결
의를 제일 많이 만들고 인공위
성을 제일 많이 쏘울린 미국

핵무기는 인류에게 참
혹한 재난을 둘쓰우는
화근으로 되지만 자주
와 정의를 지켜 싸우
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
기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이고 전
인류의 것이다.

오늘의 선군조선에는 원자
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강
력한 무기, 아직 이 세상 누
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
한 최강의 무기도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파
뜻,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있고 지구
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아성도 솟두채 날려버릴수
있는 정밀핵타격능력까지 갖
춘 공화국이다. 바로 이런
공화국에 대해 적대세력들
이 『정권교체』니, 『정권
붕괴』니 하는것처럼 어리석
은 망상을 없다.

지금 공화국은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쳐 중대결심을 했다.
그것은 세기를 넘어 이어
온 미국파의 대결력사에 종지
부를 짹고 새로운 시대를 여
는 전환적계기로 마련하기 위
한 판가름싸움의 선언이다.

이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
는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의
의 애국항전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선군조선의 군대
와 인민에게 있다.

전철호

정의의 최종결단

지금 미국의 강
도적인 침략아방파
남조선역적폐당의
북침기도는 도를
넘어섰으며 위협
공갈단계로부터 무
모한 실전단계에로
들어서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
은 핵전략폭격기
『B-52』를 남조
선상공에 들이민네
이어 본토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남
조선상공에 깊숙
이 진입시켜 공화
국을 겨냥한 핵폭
탄투하훈련을 강행
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남조선을
평화적이며 정정당당한 위성
발사와 자주권수호를 위한
대응조치인 제3차 지하핵시
험을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
리사회를 발동하여 그 무슨
『제재결의』를 련이어 조작
하고 핵전략폭격기까지 투
입하여 핵전쟁불구름을 돌아
오고있다.

미국의 광범적인
핵전쟁소동에 편승
하여 남조선의 호
전세력도 『전제타
격』과 『강력한 응징』을
떠들다 못해 그 무슨 『지휘
세력타격』과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의 상장을 감히 어
째보려는 어리석은 기도까지
로 풀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공공
연한 도전이며 민족의 생존
권을 말살해버리려는 무분별
한 도발행위,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조
미대결력사상 지금처럼 사
태가 날카롭고 협약해본적
은 일찌기 없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 압살책 동파

북침핵전쟁소동은 그대로 조
선반도정세를 극단에서 최극
단으로 몰아왔다.

회세의 선군령장이 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
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
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
회의에서 내리신 중대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파
의 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
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
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
가리싸움의 선언으로서 미국
과 남조선역적폐당을 비롯한
반통일적대세력에 대한 최후
경고이며 공화국 군대와 인
민의 멀적의 의지를 담은 정
의의 최종결단이다.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
났다. 오직 남은것은 물리적
행동뿐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6.25전
쟁보다 질량적으로 다른 가장
치렬한 전쟁으로 될것이다.
공화국에는 단 한번의 무
자비한 타격으로 모든것을
죽탕낼수 있는 막강한 공격
무기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
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
이 감히 선불질을 가한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
금껏 다지고자져온 무진막강
한 군력을 총동원하여 침략
자, 호전광들에게 둘리킬수
없는 섬멸의 불벼락을 들이
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
을 완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서자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긴급집회 진행

보고자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의 향심과 도리를
다하여 어머니조국을 수호하
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떨
쳐나서며 총련중앙위원회 제

현본부 위원장 조일연, 총련
도제도 쥐오고포지부 위원장
홍정수, 재일본조선민주녀성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량우출, 재일본조선류학
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
장 박동호, 재일본조선청년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일룡이 토론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
가자들은 『원쑤들의 책동
으로부터 우리의 제일생명
인 최고존엄을 끌어내기 사
수하자!』,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책동을 규탄
한다!』,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서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고수하
자!』는 구호들을 외쳤다.
본사기자



미국이 핵으로 아우리 위협해도

치게 된다고 한다.

말그대로 남조선과 그 주변
수역은 미국의 각종 핵타격수
단들이 집중된 살인무기전시
장으로 위협천만한 핵전쟁
의 발원지로 전변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선반
도에는 미국에 의해 장장 반
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
의 북침핵위협소동이 최절정
에 이르고 정세가 핵전쟁의
핵억제력으로 무장한 공
화국을 조금도 놀래우지 못
하도록은 일찌기 없었다.

조성된 정세는 미국과 남조
선호전세력의 군사적 행동
이 이미 실전단계에 들어갔
으며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의 발발이 시간문제로
되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

들이 『대북경고예세지』

나, 『북미싸이발사대비용』
이니 하며 최첨단핵전쟁장
비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
에 대한 무력시위놀음을 벌
려놓고있지만 그것은 공화국
의 자위적핵억제력과 무자비
한 보복타격이 무서워 광기
를 부리는 호전광들의 가소
로운 발악에 불과하다.

미국의 핵이 제아무리 위
협의 독기를 내뿜어도 자위
의 핵을 짓누르고 전쟁
도발의 소굴들을 모조리 불
바다에 잠글것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한다.

건설을 병진시킬대한 전
략적로선을 제시하고 지구상
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을 절
대로 포기할수 없으며 나라
와 민족의 재보인 핵무력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
까지 절량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
명하였다.

정의의 핵은 미국의 핵,
침략의 핵을 짓누르고 전쟁
도발의 소굴들을 모조리 불
바다에 잠글것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한다.

생화학전의 재난까지 둘쓰우려는 범죄적책동

얼마전 미국 워싱턴주 시
에 티를에 주둔하고있던 미
국군23화학대가 남조선 강점
미군2사단 1기갑단소속으로
남조선에 재배치되었다.

재배치를 알리는 공식행사
로 지난 4일 이부대는 경기
도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계
양식과 보유한 장비를 공개
하는 시연회를 개최되었다.

이번에 재배치된 23화학대
는 2004년 까지 미군 19전
구지원사령부 소속으로 경상
북도 칠곡의 미군기지에 주
둔해있다가 미군재배치계획
의 일환으로 미국본토로 철
수하였던 부대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노르망디상륙
작전, 지난 1950년대 조선침
략전쟁 등에 참가하여 악명
을 떨친 이 부대는 현재
미군의 화학부대들 가운데서

다. 하늘로는 『B-52』, 『B-2A』 핵
전략폭격기들이 날아들고 바다에는 핵
잠수함이, 지상에는 핵 및 생화학전을
전투임무로 하는 화학대가 또다시 남
조선에 이어드는 등 미국의 북침전쟁방
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핵전쟁을 예상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핵전략폭격기 『B-52』
와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
한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진
입시켜 『방어훈련』이요, 『동맹국의 리
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이요 뭐요 하고있지

만

공화국의 첫 순간타격에 모조리 박산
나고말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순간도 살수 없는것으로
생각하는 괴뢰들이나 언제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위에 핵재난을 들씌울지 알수 없는 미
국의 핵무기들까지 제 집 안방에 청해놓고
는 『안보』를 떠들고 있다. 미국상전의 힘
을 빌어 동족을 어제보려하고있는것이야말
로 가소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김판진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은 똑바
로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도, 『미국본토의 전
력』도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만 미쳐날뛰는 남조선호전세력을 구원해주
지 못한다는것을.

명금룡

미국의 화학전쟁책동에 위
험한 공범자로 적극 가담해
나고있는 남조선호전광들도
민족의 저주와 징벌을 받을
때 국제적자이다.

그들은 외세의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핵재난을 물
아오려고 발광하다 못해 생
화학전쟁의 재앙까지 겨우에
게 들이우려고 끝이 되어버리고
나고있으니 산천초목도 분
노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미 선포한대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
민은 미국과 남조
선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생
화학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
방관하지 않을것이 미국이
핵으로 공격해온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든 단
숨에의 기상으로 박살내버리
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하루강아지』의 부질없는 망동

과 같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하루강
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뛰
고있다. 최근 남조선군 해병대가 4월
을 그 무슨 『전승경의의 달』로 정
하고 대대적인 반공화국대결 깨비나야
를 벌리려 하고있는것도 그 단적인 실
례이다.

이달에 남조선군 해병대는 제주도와
경기도, 서해 5개 섬지역 등에서 섬탈
환과 협지적응, 실란사격과 무장강행
군 등 실전을 가상한 각종 군사훈련
들을 진행하여 하고있다. 또한 『독수
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일본 오끼
나와 주둔 미